

###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화보집 증정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화보집'을 국제간호협의회(ICN)에 증정했다.

한국 간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간호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박찬 감동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화보집이다.

화보집 전달은 11월 1일 열린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진행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에게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화보집'을 증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년 세계간호사대회를 서울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로 개최됐으며, 130여개국에서 1만3000여명이 모인 최고의 대회였다.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참석한 대표자 회의가 6월 17~19일,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 학술대회가 6월 19~23일 열렸다. 세계간호학사대회, 대한간호협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에게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화보집'을 증정했다.

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및 한국간호역사 사진전, 제2회 제외한인간호사대회, 한복 및 간호사 유니폼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화보집을 받은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ICN 기념주화과 기념품을 신경림 회장에게 증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간호정책 선포식 이모저모

####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마음 동참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정책 선포식을 위해 먼 길도 마다않고 모였다. 배영현 경상대 학생은 "새벽 5시30분부터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성대한 자리로 느껴졌고,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는 "간호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간호사의 권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제정!! 반드시 이루자

장충체육관을 꽉 채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다. 노영숙 MS제2병원 간호사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힘이 났다"면서 "간호정책 선포식이 간호법 제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원 차의과학대 학생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함을 명확하고 절실하게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8대 정책과제 추진 힘 모으자

대한간호협회가 선포한 8대 정책과제 실현에 힘을 모으자며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예수병원 간호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연 일산백병원 간호사는 "정책과제 하나하나에 간호사들의 고민과 현실이 녹아 있다"고 밝혔다. 박예은 원광대 학생은 "8대 정책과제

실현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 꼭 이뤄낼 수 있다는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 하나된 마음, 뜨거운 함성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하나된 마음과 뜨거운 열의가 넘쳤다. 김지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오늘 우리들의 함성이 커다란 울림이 됐다"면서 "다함께 피켓을 흔들며 불붙이는 모습이 장관이었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허현우 여주대 학생은 "간호사 선배님들과 예비간호사들 모두 한마음이 됐다"고 말했다. 김경옥 원자력병원 간호사는 "30여년을 간호사로 일했고 딸도 지금 간호대학생인데,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자랑스러운 내 이름, 간호사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됐다. 이재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는 "간호정책 선포식에 처음 참가했는데 간호사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선 목포기독병원 간호사는 "대한민국 간호사의 힘을 느낄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사들에게 힘을 실어줘 든든했다"고 밝혔다. 이다솜 분당차병원 간호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협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게 됐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간다"고 말했다.

####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

위은경 인천성모병원 유넷메디저는 "넬싱 나우 캠페인에 한국 간호사들이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제가 있는 현장에서 힘을 보

태겠다"고 말했다. 이승열 해군포항병원 간호장교는 "한국 간호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널리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간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숙 동국대 경주병원 수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넬싱 나우 캠페인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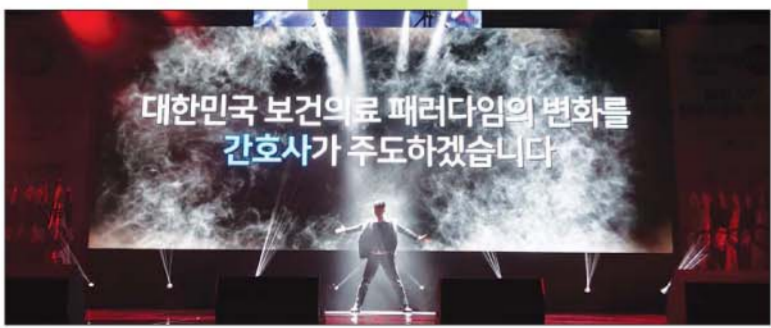
#### 간호축제 한마당

포토존을 시작으로 캐리커처 및 캘리그래피 이벤트, 경품추첨, 콘서트까지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간호의 미래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리에 와서 마음이 벅차다"면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콘서트까지 보게 돼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희 충북대병원 간호부장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뿔어낸 오늘의 열기가 간호현장으로 이어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소록도에서 헌신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간호대상을 수상했다. 김윤경 노블요양병원 간호과장은 "훌륭하신 두 간호사를 위해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에 이미 참여했다"며 "오늘 간호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슬 나사렛대 학생은 "먼 나라에서와 40여년을 봉사하신 두 분의 간호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멋진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주혜진·최수정·이진숙 기자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 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